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5기



사례집



HILLSTATE
DREAM MENTORING
5TH CASE BOOK



목 차

I. 꿈을 만나다

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08
2. 우리는 꿈키움 멘토링 5기	11

II. 꿈을 키우다

1. '우리' 조를 소개합니다	14
2. 홍보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23
3. 진로를 찾고 희망을 키우는 조별 멘토링 활동	24
학습 멘토링	25
진로 멘토링	27
친목 활동	28
4. 함께 성장하는 단체 멘토링 활동	29
발대식	29
독거 어르신 가정 방한 작업 및 환경 개선 봉사	33
디에이치 아너힐즈 현장방문 및 그룹 진로 멘토링	35
힐스테이트 갤러리 모델하우스 견학 및 임직원 특강	39
홈커밍데이	42
5. 대학생 멘토 활동	46
대학생 워크숍	46
대학생 교사모임	47

III. 꿈을 이루다

1. 계속해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	50
2. 5기를 통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소감	54
우수 활동자 인터뷰	54
그동안 서로에게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익명)	59
3. 10개월간의 발자취	61

힐스테이트
꿈기움 멘토링
봉사단 5기 사례집

HILLSTATE DREAM MENTORING
5TH CASE BOOK

I.

꿈을
만나다

꿈키움 멘토링은 다양한 맞춤형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이끌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현대건설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4년 9월, 1기를 시작으로 현재 5기까지 이어진 꿈키움 멘토링은 다양한 맞춤형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꿈키움 멘토링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현대건설 임직원 멘토와 대학생 멘토, 그리고 고등학생 멘티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이 아닌 멘티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대건설 임직원 멘토와 해당 전공 대학생을 멘토로 매칭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직원 멘토에게는 현장업무를 통하여 체득한 실무적인 조언과 심층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대학생 멘토에게는 직접적인 학습 멘토링을 중심으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탐색을 하고 있는 고등



학생 멘티부터 자소서와 면접을 중심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들까지 모두 임직원 멘토와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전공별 진로 탐색 및 직무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의 학습 멘토링은 주 1회, 임직원 멘토와 대학생 멘토, 고등학생 멘티가 함께하는 진로탐색 멘토링 및 단합 활동은 월 1~2회 이루어집니다. 진로 탐색 멘토링에서는 진로 상담부터 시작해 희망 진로를 향한 전문가 인터뷰, 각종 현장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멘토와 멘티 간의 성격과 취미까지 고려한 여러 문화체험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 조의 개성에 따라 멘토링 외에도 다양한 만남을 주선해줍니다. 이루어집니다.

주, 월별로 진행되는 학습 및 진로 멘토링 이외에도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4회의 대학생 멘토 모임, 전체 봉사단원들과 함께하는 약 3회의 연합활동, 대학생 멘토 워크숍 1회 등 다채로운 활동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꿈키움 멘토링 5기

1조

A팀 멘티 유재원 중앙고등학교 **대학생멘토** 황성혜 이화여자대학교 **임직원멘토** 조현욱 주택사업본부
 B팀 **대학생멘토** 이예린 경희대학교 **임직원멘토** 노경래 주택사업본부

2조

A팀 멘티 신승우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대학생멘토** 김태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직원멘토** 김창수 주택사업본부
 B팀 멘티 문량진 한양공업고등학교 **대학생멘토** 조웅전 서울시립대학교 **임직원멘토** 이정욱 R&D센터

3조

A팀 멘티 박태우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대학생멘토** 최수락 한양대학교 **임직원멘토** 지기철 구매본부
 B팀 멘티 정영진 중앙고등학교 **대학생멘토** 한창희 송실대학교 **임직원멘토** 이선호 플랜트사업본부

4조

A팀 멘티 고영준 한양공업고등학교 **대학생멘토** 유재혁 중앙대학교 **임직원멘토** 민복기 토목사업본부
 B팀 **임직원멘토** 김상한 주택사업본부

5조

A팀 멘티 유명준 서울공업고등학교 **대학생멘토** 김동한 서울시립대학교 **임직원멘토** 이근주 주택사업본부
 B팀 멘티 김영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대학생멘토** 김영서 한양대학교 **임직원멘토** 강수진 건축사업본부

6조

A팀 멘티 박건균 한양공업고등학교 **대학생멘토** 이남현 인하대학교 **임직원멘토** 장한규 글로벌마케팅사업부
 B팀 멘티 이정하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대학생멘토** 정인영 한양대학교 **임직원멘토** 양지석 전략기획사업부

7조

A팀 멘티 장채령 이화여자고등학교 **대학생멘토** 강연준 경희대학교 **임직원멘토** 곽문창 재경본부
 B팀 멘티 남시은 이화여자고등학교 **대학생멘토** 이희지 서울시립대학교 **임직원멘토** 김원겸 재경본부

8조

A팀 멘티 남상훈 한양공업고등학교 **임직원멘토** 성민석 건축사업본부
 B팀 멘티 김민석 중앙고등학교 **대학생멘토** 이지은 송실대학교 **임직원멘토** 고윤배 플랜트사업본부

서포터즈 임수연 한양대학교 최민주 한양대학교 김민수 서울시립대학교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5기 사례집

HILLSTATE DREAM MENTORING
5TH CASE BOOK

II.

꿈을
키우다

백지 '100지'

고추바사삭

열정 뽐뽐

시간 엄수

베잇 클로버

육회 먹다 사랑에 빠졌조

스파클링

팔팔하조

1 '우리' 조를 소개합니다

🏢 임직원 멘토 🎓 대학생 멘토 🏠 멘티

1조
백지 '100지'






🏢 조현욱 🎓 황성혜 🏠 유재원
노경래 이예린

‘백지’라는 별명을 가진 1조, 이 별명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텅 비어있는 미완성 단계이지만 그만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100이지’의 준말로 힌도화지가 100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재원이와 다빈이가 백지에 꿈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는 조현욱, 노경래 멘토님과 옆집 언니, 누나처럼 편안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으로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황성혜, 이예린 멘토! 공연장이나 미술관, 카페 탐방 등으로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관심분야 종사자들로부터 의료, 제약, 화공 관련 직무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등 매번 성공적인 활동을 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2조 고추바사삭




 김창수
 김태경
 신승우
 이정욱 조웅전 문량진

고추바사삭 치킨이 고추의 매콤함과 치킨의 담백함이 조화를 이루며 센세이션을 불러왔듯이 2조 또한 건축공학과와 토목공학과가 모여 건축의 조화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별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에서 가장 잘 어울리고 누구보다 재미있는 남성 6인이 모인 고추바사삭 조입니다. 김창수, 이진욱 멘토님께서서는 조를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조의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진로 멘토링도 진행해주시면서 단합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셨습니다. 8개 조 가운데서 카페 활동과 진로 멘토링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한 조로 손꼽힌 '고추바사삭' 조! 모두가 인정한 최고의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3조 열정뽀뽀






 지기철
 최수락
 박태우
 이선호 한창희 정명진

겉보기에는 가장 차분한 조원들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활동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열정뽀뽀' 조. 저희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서로를 배려하고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하는 조입니다. 특히나 모든 조원이 함께 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최수락, 한창희 멘토, 정명진, 박태우 멘티의 관심분야와 진로를 항상 적극적으로 물어봐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지기철 멘토님과 이선호 멘토님! 더불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추진해주셔서 모두가 서로 돌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4조 시간엄수









 민복기 유재혁 고영준
 김상한

“자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냐? 바로 ‘시간엄수’라네~” 첫 만남 때부터 강렬한 팀명이 생긴 ‘시간엄수’ 조. 처음 발대식 때 민복기 과장님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갖자’며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팀명을 ‘시간엄수’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시간엄수’ 조답게 단체 활동이나 진로멘토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때 그 어느 팀보다 시간을 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엄수’ 조에는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갈래 길에서 고민에 빠진 멘티가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는 진로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멘토와 멘티가 모두 뿌듯해했고 이와 동시에 꿈키움 멘토링 활동의 매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조 세잎 클로버






 이근주 김영서 유명준
 강수진 김동한 김영준

5조에는 현재는 대학생 멘토이지만 4기 때 고등학생 멘티로 활동했던 김동한 멘토가 있습니다. 5조의 조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세잎 클로버처럼 평범할 뿐더러 네잎클로버처럼 행운을 의미하지도 않지만 세잎 클로버의 꽃말인 ‘행복’처럼 조원들의 꿈과 행복을 위해 서로 도와가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강수진 멘토님과 김영서 멘토, 고영준 멘티는 교환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서로의 사소한 생활의 일부까지 공유하고 있는데 ‘세잎클로버’의 숨어있는 속뜻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조라고 생각합니다.

6조
육회 먹다
사랑에 빠졌조



장한규 정인영 이정하
양지석 이남현 박건균

실제로 6조는 8개 조 중에서 조원들과 맛집 투어를 가장 많이 했는데요. 광장시장에서 육회를 먹다가 불
게 타오르는 육회빛의 열정으로 함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새뮤얼 버틀러가 말한 '살아가는 일은 결국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모두 결국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지는 않을까 라는 깨달음을
얻어 '사랑'을 6조만의 키워드로 삼았다는 육회 먹다 사랑에 빠졌조. 별명처럼 활동기간 동안 모든 일에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조
스파클링






곽문창 강연준 장채령
김원겸 이희지 남시은

늘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7조, '스파클링' 조입니다.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가 모두 여
성으로 구성된 7조는 특유의 톡톡 튀는 매력으로 항상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조원들은 '10
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걸어가며 톡톡 튀는 탄산 같은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해주
었습니다. 그 접점에서, 서로에게 보폭을 맞춰가며 밝은 매력으로 호흡할 수 있었고 천천히, 그리고 깊게
내딛는 7조만의 자취는 '스파클링'한 청량감을 아낌없이 발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조 팔팔하조



 성민석
 이지은
 남상훈
 고운배 김민석

5기 활동자들 중에서 가장 조용한 멘토들과 멘티들이 모인 8조. 발대식 때 모두가 떠들썩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안전한 모습을 잃지 않고 조용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 8조는 다들 무기력하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팔팔(88)한 8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특유의 친목활동으로 끈끈한 단합력을 보여준 팔팔하조였습니다.

꿈을 키워온 우리 그리고 지금, 「꿈키움 홀커밍데이」

강덕호
 강명준
 강민석
 강성진
 강수진
 강연준
 고민혁
 고영준
 고운배
 고훈영
 각문창
 권석현
 권소희
 권현욱
 김강민
 김건호
 김경수
 김경은
 김기남
 김기재
 김기현
 김대영
 김동만
 김동완
 김동한

2 홍보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임수연 최민주 김민수

꿈키움 멘토링의 홍보 서포터즈는 전반적으로 본 활동을 홍보하는 일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별 담당 홍보 서포터즈가 조별로 진행하는 진로 / 학습 멘토링, 간담회에 참여 및 취재하여 블로그에 포스팅을 합니다. 각 조마다 담당하는 홍보 서포터즈가 있지만 서로의 스케줄에 맞춰 교차 취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단체 연합 활동 때는 스케치 촬영 및 참여 후기를 작성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홍보 서포터즈로서 가장 큰 임무인 5기 멘토링 활동 사례집 및 봉사단 활동 홍보 영상 제작은 다 함께 충분한 회의를 거쳐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5기 홍보 서포터즈는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훌륭하게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5기 멘토링의 단합을 이끈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인싸들(?)로 구성된 5기 홍보 서포터즈는 발대식 때부터 남다른 활발함으로 레크리에이션 분위기를 이끌고 주도적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진행해 가족 같은 5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홍보 서포터즈의 리더로서 누구보다 고생한 민주, 꿈 키움 멘토링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매 순간 추억을 남기기 바빴던 수연, 언니들 사이에서 막내로써 항상 나서서 열심히 해준 민수, 눈부신 활약을 해줬던 5기 홍보 서포터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3 진로를 찾고 희망을 키우는 조별 멘토링 활동

꿈을 좇아 열심히
달려 나가는 과정에서
다르네시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제공해주는

현대건설 꿈키움 멘토링

◦ 학습 멘토링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는 1:1로 조를 이루어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는데요! 5기 활동기간 동안에도 각 조는
매주 1회 이상 10개월간 총 40회 이상의 멘토링이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링 커리큘럼, 시간, 장소까지 멘토링의 모든 부분을
대학생 멘토와 멘티가 상의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수업,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 학습멘토링 중인
2조의 김태경 멘토와
신승우 멘티



▶ 교차멘토링을 진행한
1조의 이예린 멘토와
3조의 정명진 멘티

대학생 멘토와 멘티는 첫 만남에서 우선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한 후,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공부에 있어서의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멘티들을 걱정하며 전담 선생님처럼 세심하게 함께 고민해주는 멘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보통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과 같은 주요 과목을 공부하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 멘티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멘티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의 대학생 멘토는 멘티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지금 멘티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며 신중히 학습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평소 학습 멘토링 때 진행하던 과목 외에 다른 과목 수업을 멘티가 원한다면 멘티들의 요청사항에 따라 유동적으로 다른 조 멘토와 교차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7조 대학생 이희지 멘토와 고등학생 남시은 멘티

**학습 멘토링
진행 현황**

시은이 중간고사 전까지는 수학 중심으로 학습 멘토링 진행했고,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혼자서 하기에 조금 버거운 부분이 생겨 다른 조에 멘토링을 요청해 교차 멘토링을 3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영어 중심으로 학교 보충교재를 가지고 영어 기말고사 대비를 진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희지 멘토가
시은 멘티에게**

시은이의 장점은 너무 순수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까지 순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리는 줄 알았는데 멘토링을 한두 번 진행해보니 말도 많고 정도 많은 친구라는 걸 알았고^^ 또한 굉장히 친근하게 대화할 때 리액션도 적극적으로 해주어서 정서적 교감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 학습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한창 예민하고 힘든 시기라 많은 대화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려 했는데 열심히 대화하며 고민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웠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자기 진로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 나도 당시에 입시에 대해 굉장히 생각이 많았는데 함께 많이 고민해서 윤곽은 잡고 끝났으면 좋겠어!

**시은 멘티가
희지 멘토에게**

유머가 넘치셔서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멘토링을 즐겁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함께 있는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남자친구 만나셨으면 좋겠고 취업도 파이팅 하세요!

○ **진로 멘토링**



▲ 현대건설 본사에서 임직원 멘토분들의 회사 소개 및 설명을 들은 3조



▲ 현대건설 투어를 진행한 2조



▲ 행정안전부처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최고야 주무관'님을 만난 7조



▲ KT 송파지사 개발사업 현장에 방문한 2조와 5조

대학생 멘토들과 고등학생 멘티들의 요청 사항을 늘 적극 반영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현직 종사자 분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많은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임직원 멘토님들. 항상 먼저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진로 멘토링 자리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저희가 먼저 주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두가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 친목활동(간담회)

꿈을 좇아 열심히 달려 나가는 과정에서 지칠 수 있는 저희에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제공해주는 현대건설 꿈키움 멘토링! 멘티들의 취미와 평소에 해보고 싶던 활동의 취향을 고려해 다양하고 색다른 친목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꽃꽂이, 야구 경기 관람, 대마도 여행 등 잊지 못할 활동들을 함께하며 멘토와 멘티 간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끈끈한 단합력까지 기를 수 있었습니다.

▼ VR 체험을 하러 간 2조



▼ 양궁시합을 하러 간 8조



▲ 꽃꽂이를 한 2조

▲ 건국대학교 투어를 한 8조

▼ 한강에서 간담회를 연 7조

▼ 성신여대로 컵만들기를 하러 간 3조



발대식

2018년 9월 14일, 양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갤러리에 현대건설 임직원 멘토, 대학생 멘토, 청소년 멘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선물 받은 단체티를 입고 함께 충청남도 서산의 현대건설 연수원으로 이동해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5기의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의 시작이자 10개월간의 여정을 함께 할 멘토와 멘티들이 처음 얼굴을 익히는 자리인 만큼 모두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 8개의 조의 48명과 홍보 서포터즈 4명이 함께한 이날 발대식은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착 후 강당에 모여 전체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배정받은 방에서 준비를 마치고 나와 멘토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다 같이 밥을 먹으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시간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준비한 퀴즈와 게임을 조별로 팀을 이루어 진행했는데 번쩍 손을 들고 답을 맞히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몸개그를 하는 등 꾸밈없는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며 급속도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임직원 멘토와 대학생 멘토들은 지도와 조언을 통해 어떻게 멘티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 소통능력 증진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청소년 멘티들은 진로/적성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레크레이션으로 하루가 마무리되었는데 4기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준비하신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완벽한 구성과 매끄러운 진행 덕분에 극강의 단합력을 기를 수 있었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마지막 날은 팀 빌딩 레크레이션을 통해 가족처럼 친해진 조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개월 동안 잘 부탁한다는 의미를 담은 임명장을 직접 전달하고 서로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발대식을 마무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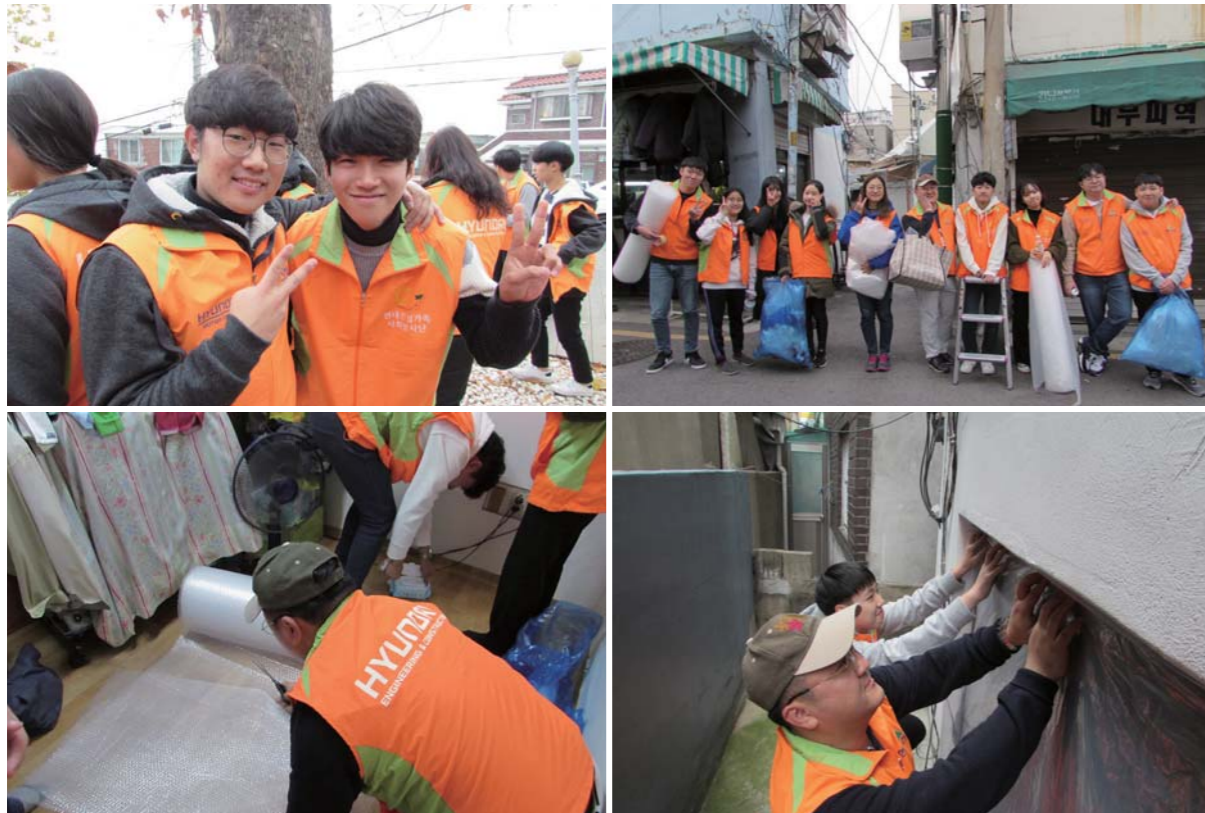


독거 어르신 가정 방한 작업 및

환경 개선 봉사

드디어 5기의 첫 단체 활동과 대학생 워크숍이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대식 이후 오랜만의 단체 활동이었는데요. 주말 이른 아침, 창신동에 모여 종로종합사회 복지관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곳의 조별 멘토링 진행 상황과 향후 진행 계획을 보고하고 다른 조들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 모인 자리인 만큼, 다른 조들과도 친해지기 위해 임직원 멘토, 대학생 멘토, 고등학생 멘티가 조별로 각각 나와 자기소개와 매력 어필을 했습니다.





각자 자기 조의 멤버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과 멘토와 멘티의 서로 아낌없는 칭찬 경쟁으로 더욱더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활동보고가 끝나고 다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기초 교육을 듣고 필요한 물품을 들고 각 조별로 담당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 5기는 이번에 독거 어르신 가정 방한 작업 및 환경개선 봉사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높은 언덕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모두 힘든 내색 없이 독거노인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과 뿌듯함을 가지고 즐겁게 봉사에 임했습니다. 임직원 멘토님들은 역시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찬바람을 막기 위해 창문에 단열 뽁뽁이를 붙이고, 비닐 치수를 재는 등 주도적으로 작업을 이끌어 갔습니다.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들은 빠른 습득력으로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문풍지를 붙였습니다. 역시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모두 없는 단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다른 불편한 점은 혹시 없으신지 여쭙가면서 최대한 열심히 많은 것을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순식간에 봉사활동이 끝나고 다시 처음에 교육받던 장소로 돌아와 봉사활동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멘토, 대학생 멘토, 고등학생 멘티가 함께 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던 활동이었습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현장방문 및 그룹 진로 멘토링

추운 겨울 어느 날,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5기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날은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아너힐즈 신축현장을 견학하고, 평소에 이야기 나눠보지 못했던 다른 조 멘토님과의 '소그룹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현장을 견학했는데 실제 현대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건설회사에서 하는 일과 아파트의 시공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건설 현장을 둘러보기 전, 봉사단은 디에이치 아너힐즈 신축현장에 대한 소개와 건설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들었고, 안전을 위해 두 개의 조로 나누어 견학했습니다. 한 조가 견학하는 동안 다른 한 조는 현대건설의 황희정 관리부장과 정진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연을 진행해주신 정진우 과장님은 건설회사의 각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시공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센스 있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개포동 건설 현장에서는 36명의 현대건설 직원분들과 여러 근로자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36명의 직원분들은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공무 파트, 시공 도면이나 설계를 총괄하는 기술품질 파트, 회계 처리를 담당하는 관리 파트, 그 외에 공사 파트, 토목 조경 파트, 안전 파트 등 총 6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설 현장과는 달리 아파트는 특별히 고객을 직접 만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 파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깨닫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남극 기지 등 현대건설이 시공한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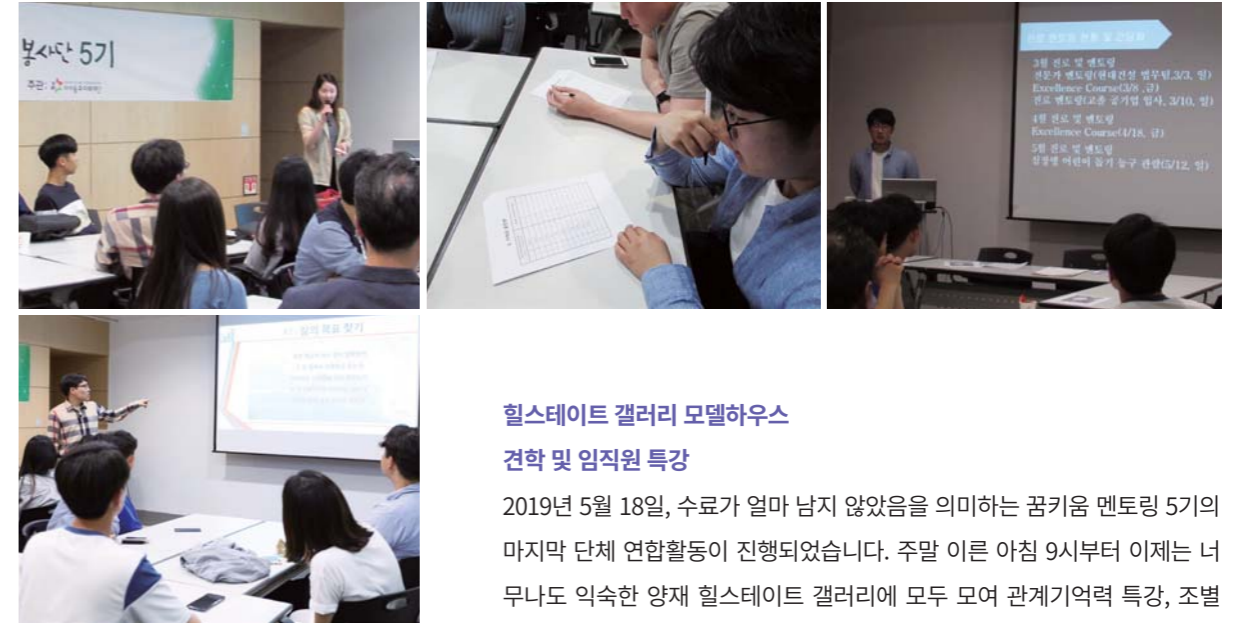
건설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제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에이치'가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만큼 다른 아파트와 달리 최신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감탄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멘토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조명의 위치, 벽의 구조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기존의 조가 아닌 각자 관심분야의 새로운 조의 임직원 멘토님을 만나서 소그룹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법학, 마케팅, 토목, 건축, 해외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중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멘토님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정해져 있는 대학생 멘토는 취업을 위한 자소서부터 시작해 스펙을 위한 자격증, 활동이나 공부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하고 아직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고등학생 멘티는 관심분야의 관련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임직원 멘토님께서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사례를 가져와 성심성의껏 조언해주시고 직무 관련 멘토링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 인생관 등 인생 선배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족해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 번 친목 도모와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캘리그라피를 배웠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처음 접하는 멘토님들과 친구들이 많아 다들 시작하기 전에 걱정부터 했지만 막상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몇 번 연습하니 금방 적응해 서로 더 예쁘게 쓰기 위해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앉으신 다른 조의 멘토님, 친구들과 함께 담소도 나눠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덕분에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다들 굉장히 만족해하고 다시 한 번 봉사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힐스테이트 갤러리 모델하우스
건축 및 임직원 특강**

2019년 5월 18일, 수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꿈키움 멘토링 5기의 마지막 단체 연합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9시부터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양재 힐스테이트 갤러리에 모두 모여 관계기억력 특강, 조별 멘토링 상황 보고, 모델하우스 견학, 민복기 과장님의 스피치 강연 순으로 모두가 함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관계기억력 특강에서는 사물과 장소 등을 결합시켜 기억하는 연습을 했는데, 다들 시험공부 할 때 암기 과목 때문에 골치 아파했는데 암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두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을 써서 기억해야 할 것들과 연관시키는 과정에서는 한눈에 봐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임직원 멘토와 대학생 멘토, 고등학생 멘티의 각각 너무나도 다른 성향들이 보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조별 멘토링 상황 보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의 모든 대학생 멘토가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활동의 막바지에 다른 지금, 각 팀의 멘토링 상황과 각각의 멘티의 향상과정을 공유해 마지막까지 멘티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열심히 생각하는 멘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D



세 번째 시간에는 다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모델 하우스를 견학했습니다. 다 같이 실내화로 갈아 신고 갤러리 위층에 있는 모델 하우스로 이동해 오늘 하루 저희의 선생님을 맡아 주신 김창수 차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안 예쁜 곳이 없는 모델 하우스를 구석구석 견학했습니다. 건축이나 건설 쪽으로 진로를 정한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김세원 차장님과 안철호 대리님께서도 대학생 멘토들을 위해 함께 견학하며 옆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복기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탁월해지기 위한 영향력 심화 강연을 들었는데요. 짧은 시간 에너지를 혹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기존 우리가 알던 강연과는 달리,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만 같은 열기로 모두가 눈을 땔 수 없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능력이 다소 부족한 저희에게 자극제 역할과 동시에 힐링을 시켜주셔서 진로에 대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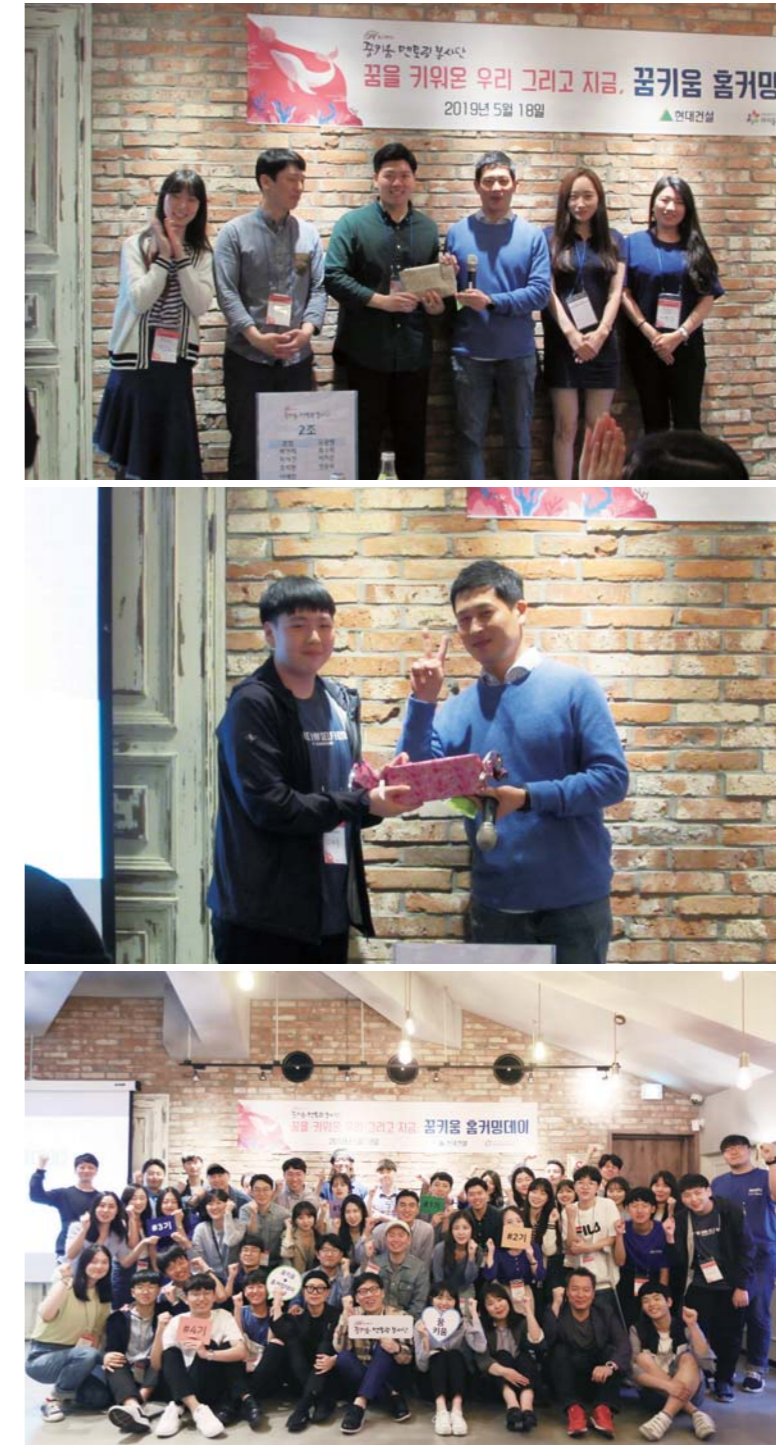
홈커밍데이

이제 대망의 홈커밍데이 시간이 왔습니다. 역대 최초로 진행된 1기부터 5기까지가 함께한 홈커밍데이는 남부 터미널 근처에 있는 엘리스 가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홈커밍데이를 위해 홍보 서포터즈도 매니저님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함께 계획한 사진과 영상 촬영, 인터뷰 진행을 위해 각자 구역을 나누어 바쁘게 활동했습니다! 우선 3,4기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초면인 상태에서 바로 인터뷰를 하면 어색한 상황에서 풍부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먼저 농담도 해주시고 인터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문 앞에서 홈커밍데이 참석을 위해 와주시는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의 드레스 코드인 블루로 포인트를 준 코디를 하고서 밝은 미소를 띤 채 오시는 분들을 보며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홈커밍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마련되었고, 모두가 반가움에 해사한 미소로 인사하고 포옹하고, 사진을 남기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MC 분의 진행 하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긴박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서먹서먹함을 없앴습니다. 이후에는 역대 꿈키움 멘토링의 발자취가 담긴 영상 감상을 통해 추억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의 쉬는 시간 후에는 모든 기수가 섞여 소그룹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키움 멘토링 출신의 직장인이 된 대학생 멘토들이 한 조를 맡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앞으로의 계획과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묻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오직 꿈키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드레스 코드인 블루를 가장 멋지게 소화한 베스트 드레서 선정과 각자 준비해온 마니또 선물 교환식을 진행했습니다. 모두들 열성을 다한 리액션으로 분위기는 더욱 후끈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꿈키움 멘토링 5기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이끌어 주신 김재선 매니저님께서 오늘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신다는 소식에 다들 너무나도 아쉬운 기색을 보이며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어느새 홈커밍데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면서 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끝까지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주위에 온통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해 모두가 꿈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5 대학생 멘토 활동

더욱더 완벽한, 대체 불가능한 꿈키움 멘토링이 되기 위한 다짐

대학생 워크숍

봉사활동을 마치고 대학생 멘토들만 따로 대학생 멘토와 홍보 서포터즈의 단합 및 활동 발전 사항을 논의 하기 위해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워크숍 장소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함께 장소 보고, 고기도 구워 먹고,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는 게임도 같이 하며 사이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해주신 임직원 멘토님 한 분도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게임을 참여하셔서 큰 웃음을 선사해주셨습니다. 또한 누구나 한 번쯤 했을법한 마니또!를 진행했지만 서로 너무 티 나게 행동해 아쉽게도 반전 드라마는 볼 수 없었습니다. 친목뿐만 아니라 향후 멘토링 개선을 위해 다 함께 토의하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더욱더 완벽한, 대체 불가능한 꿈키움 멘토링이 되기 위해 다짐했습니다.



교사회의

2019년 7월 2일, 마지막 대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조별 활동이나 단체 활동과는 별개로 대학생 멘토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임입니다. 대학생 멘토들만이 모인 만큼, 서로의 멘토링 과정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멘토들이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진정한 멘토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조의 모든 멘토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의 근황을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학생들끼리의 친목을 다질 수 있기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꿈기움 멘토링
봉사단 5기 사례집

HILLSTATE DREAM MENTORING
5TH CASE BOOK



꿈
이루다

1 계속해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

조현욱 민복기 김동한

현재 5기에서 1조의 리더를 맡고 계신 조현욱 부장님



꿈키움 멘토링을 계속해서 참여하시게 된 계기

꿈키움 멘토링은 2기부터 시작해 이번 기수로 5기가 끝나갑니다. 꿈키움 멘토링을 계속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좋으니깐 하는 것인데, 솔직히 제가 더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히 뭔가 해야 하는데 꿈키움 멘토링으로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보람찬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지치고 힘들 때 꿈키움 멘토링이 힐링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해주는 것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지침과 피로도 금세 날아갑니다.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되어 당연하게 정지했는데, 잘 섰다고 양심냉장고를 받는 느낌이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정신적 힐링과 보람까지 주니 안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내가 해주는 사소한 것들이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니 항상 부족한 내 자신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다음 기수의 멘토님들과 대학생 멘토, 고등학생 멘티에게 전해주고 싶은 꿈키움 활동에 있어서의 꿀팁이 있다면?

우선 대학생, 고등학생 멘티들은 직장인 멘토를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도움받기를 원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편하게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주고 싶어도 뭘 해줄지 몰라 못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 멘토만 멘토가 아니라 모든 기수 멘토가 내 멘토라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멘토는 주특기도 있고 잘하는 게 꼭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 멘토뿐만 아니라 우리 기수 모든 멘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은 작은 인연으로 행복하다'라는 피천득 작가의 말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문구입니다. 봉사라는 키워드로 만났기에, 부담 없기에 연속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인 멘토는 우선은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들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만나기 힘든 사람, 만나기 힘든 공간, 경험해보기 쉽지 않는 일 등등. 만약 본인에게 어렵다면 위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멘토 자신도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니 이 또한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직장인 멘토도 이번 1년 한 번이라는 생각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 끝까지 가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원칙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은데 멘티들에게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로 멘토링과 간담회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

항상 멘티들과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멘티의 꿈이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나서 내가 가능한 것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만족도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연(High Performance)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

HP(High Performance) 강연이란 탁월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강연으로, 삶의 다음 단계로 나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습관을 키우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 교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CHPC(Certified High Performance Coaching)의 약자로 전 세계적인 자기계발 전문가 Brendon Burchard가 만든 코칭을 총 4번 받았고 이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연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제 삶의 목표에서 제 삶에 들어온 사람들을 좋은 모습으로 이끌겠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던 중, 강연 혹은 코칭 등을 해서 이 친구들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재능 기부 형태로 이 친구들을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강연을 하게 되었다.

모든 멘토들과 멘티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으로서 직접 강연에 나선 민복기 과장님
High Performance Coach

강연을 꾸준히 하게 해준 원동력이 있다면?

지금은 대학생이 된 작년에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자기 삶의 목표가 세상에 좋은 가치를 더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당시 대학생 멘토였던 친구에게 해 준 말이었는데 그 멘토가 저에게 '제 멘티가 저보다 속이 깊은 것 같아요'라면서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멘티의 인생의 관점을 내가 조금이라도 바꿔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원래 무언가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10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맨 처음 4기 시작할 때는 보통 2시간 정도 강연한다고 하면, 피피티 자료도 처음 만들고 발표 연습도 해야 돼서 준비 시간이 지금에 비해 2배는 더 걸렸었습니다. 약 3-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만들고 연습하고 고치고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점점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약 2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강연을 언제까지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6기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6기랑 상관없이 이 강연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무료로 진행할 강연으로 마음먹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확신을 동기부여를 해주는 활동이기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들었던 친구들도 처음부터 다시 들으니까 새롭다는 의견도 많고 강의내용을 들으면서 실천보다는 아무래도 입력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최대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강연할 계획입니다.

6기가 되실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우선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녹록치 않은 활동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여기서 이력서 한 줄 얻어가기 위해 온다면 얻어갈 것이 거의 없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시는 임직원 멘토님들은 '내가 이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의지가 확 불타올라요. 이렇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저 열심히 할 거예요'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타나면 분명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여기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더 배우고,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활동이 끝나더라도 계속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면서 분명 많은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3기 멘티, 5기 대학생 멘토 김동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멘티에 대해서 알아가고 멘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2,3기 멘티로 활동하면서 멘토님들이 제 꿈을 지지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셨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제는 멘토로서 멘티가 꿈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워 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다른 봉사와는 달리 대학생 멘토 또한 멘토링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직원 멘토분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해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제가 다시 멘티에게 가르쳐주면서 배움을 나눈다는 점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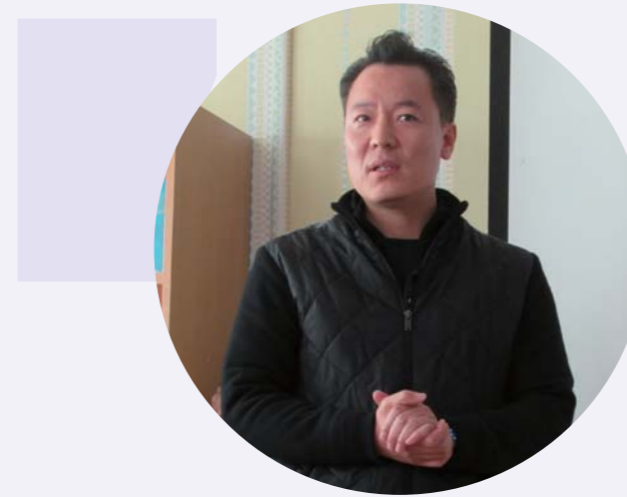
멘티가 꿈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워 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2 5기를 통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소감

고추바사삭
김창수
김태경
신승우

시간엄수
민복기
유재혁
고영준

• 우수활동팀 인터뷰



2조 고추바사삭
임직원 멘토
김창수 차장님

활동을 마친 소감

늘 이맘때가 되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 만나서 설레던 마음이 여전한데, 벌써 10개월이 지나서 헤어진다는 생각에 늘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멘토와 멘티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멘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만, 앞으로의 만남은 너희들의 역할이다”라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멘티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저는 또 다른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수 멘토로 뽑힐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법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멘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기적인 만남이든, 번개로 진행된 만남이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멘티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여러 가지 만남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일방이 아닌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로 우수멘토로 뽑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멘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대학생 멘토의 자취방에 다 같이 방문하여 모두가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누어 먹은 활동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송파구청을 방문하여 현직 새내기 공무원들과 만났을 때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멘티들의 세상 진지한 모습에 무척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멘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고민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만 있으면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팀 구호인 “고추바사삭” 치킨을 다 같이 못 먹은 게 마음에 걸립니다. 멘티 여러분 ~ 조만간에 다시 한 번 모여서 “고추바사삭” 한번 합시다.



2조 고추바사삭 대학생 멘토 김태경

활동을 마친 소감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들 덕분에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습니다.

우수 멘토로 뽑힐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법

사람을 좋아해서 항상 먼저 다가갔던 것이 비법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진로활동 중 현장 견학을 하면서 실제로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기수분들 저도 처음엔 10개월이 길다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 아쉬움이 남고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다 같이 많이 즐기면서 활동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조 고추바사삭 고등학생 멘티 신승우

활동을 마친 소감

우수멘토 조에 선정되어 마지막까지 너무 즐겁고 행복한 활동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한 것에 더욱 보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수 멘토로 뽑힐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법

제 멘토분들은 항상 모든 것에 열심히 참여하셨고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활동한 것이 우수 멘티에 뽑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제가 막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차장님께서 송파구청 공무원분을 섭외해주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가볼 수도 없는 현장을 두 번이나 데려가 주셔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월이 정말 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도 고추바사삭 조와 계속 연락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 사람들과 계속
같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활동을 마친 소감

2년 연속으로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준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배운 것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 사람들과 계속 같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우수 멘토로 뽑힐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법

내 담당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공평하게 대해주려고 했던 것, 학생들이 나라는 사람을 '사심 없이 도움을 주려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준 덕분에 우수 멘토로 뽑힐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야구장으로 간담회를 간 적이 있는데 함께 갔던 여학생 한 명이 쓰러져 매우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일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가장 기억에 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조금씩 당연히 방향은 하겠지만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방향하지 않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분야, 원하는 길을 잘 찾아가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4조 시간엄수 임직원 멘토 민복기 과장님



4조 시간업무 대학생 멘토 유재혁

활동을 마친 소감

저희 팀이 우수활동 조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생 멘토인 저도 열심히 활동하였지만 저의 임직원 멘토인 민복기 과장님과 고등학생 멘티인 고영준 학생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저와 영준이를 위해서 좀 더 양질의 진로 멘토링과 간담회를 진행하시려 저희에게 진로나 의사에 대해 물어보며 물심양면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영준이는 제가 처음 멘토링 때 강조한 연락하는 것과 시간업무를 잘 지켜주었고 제가 멘토링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주고 잘 따라주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발대식이나 멘토링 때 약속했던 기본사항들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수활동 조에 뽑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꿈키움 활동을 하는 1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 책임감과 같은 인성적인 많은 성장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저의 진로 측면에서 자극을 받고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조 시간업무 고등학생 멘티 고영준

활동을 마친 소감

민복기 과장님과 유재혁 멘티 형을 만나서 우수 멘티에 뽑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OT 때 과장님과 멘티형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 그동안 서로에게 못다 한 말들

모두들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임직원 멘토님들은 4명의 입맛을 맞춰주시고, 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멘티들도 낮을 많이 가리고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중간 역할에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부족했지만 좀 더 연락 자주하고 먼저 계속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멘티였던 다빈이. 중도에 하차했지만 그래도 잘 따라 와줘서 고마웠어! 노 대리님!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로멘토링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만큼 좋은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자주 연락하겠습니다.

나의 멘티에게,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서로 만든 약속들을 잘 지켜주면서 활동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스스로 공부도 알아서 열심히 하고 친형처럼 편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같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놀기도 했는데 그 덕에 엄청 친해진 것 같아.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끝나게 됐네. 꼭 원하는 진로에 합격해서 우리 술 한 잔 하자~

량진이 정욱이형 10개월간 다 같이 함께해서 매우 좋았고 우리가 다들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게 얻은 인연 오래 이어가요^^

5조 6조 직장인 멘토분들, 그리고 함께한 대학생 멘토들, 멘티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덕분에 저는 4학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빠르고 어떻게 보면 늦은 학년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 진로를 찾게 된 계기는 꿈키움 멘토링에서 여러 진로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와 같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멘토님들 항상 저희들에 맞춰서 잘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학기 중에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좀 더 자주 뵙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활동이 끝나도 좋은 인연 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멘토링 활동에 임하고, 멘토분은 그동안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멘티는 잘 따라 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준이에게 속제로 많이 닦달해서 미안하지만,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 건 확실하니 저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 믿어요^^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잘 따라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스스로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 좋아 보였던 것 같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하면 좋겠고, 활동이 끝나도 계속 연락하면서 만나면 좋겠다.

임직원 멘토님에게. 멘토님 정말 같은 건축 일을 하시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알려 주려하시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건설현장을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주저 없이 진행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사 주시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3 10개월간의 발자취

멘티들의 성적 향상

1조

황성혜 멘토, 유재원 멘티

수학 7등급



5등급

2조

김태경 멘토, 김승우 멘티

- 토목제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 획득
-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합격
- 물리, 역학 반 등수 1등

3조

최수락 멘토, 박태우 멘티

- 반 등수 15등 ⇨ 8등
 - 토익 점수 획득
 - 콘크리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획득
- 한창희 멘토, 정명진 멘티
- 1학년 내신 성적 향상 2.9등급 ⇨ 2.5등급
 -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점수 40점 향상(50점 초반 ⇨ 90점대)

4조

유재혁 멘토, 고영준 멘티

- 측량기능사 자격증 획득 / 컴활 2급 필기
- 전국산악대회 우승

5조

김동한 멘토, 유명준 멘티

목표했던 '서울공고' 진학

8조

이지은 멘토, 김민석 멘티

영어 4등급



3등급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5기 사례집

발행일 2019년 12월 00일
발행인 이훈규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72 삼보빌딩 5층
T. 02-843-8478 F. 02-843-8482
디자인 더디앤씨